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주매일 1층
TEL: (063) 859-2400 ~ 2410 FAX: (063) 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7년 3월 10일 금요일 (음 2월 11일) 제1763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중사드 보복 도, 관광객 확보 '초비상'

전북방문의 해 맞아 관광홍보계획 수립 중국인 관광객 급감 극복하기 위해 동남아 개척·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

작년 방한 관광객의 46.8%를 차지하는 중국이지만, 사드 문제로 인해 중국 이외의 해외시장 다변화가 시급해졌다.

이에 따라 전북도는 동남아 관광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하고 전통적인 관광시장인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상별로는 국내 관광객과 국외 관광객으로 나뉘고, 시기별로는 계절·연휴로 구분하여 각각의 대상과 시기에 적합한 홍보계획을 마련했다.

먼저, 국내관광객은 기념일이나 연휴·휴가 기간을 이용한 '데이 마케팅'을 집중 추진한다.

특히 가족·연인, 문화센터나 동호회원, 수학여행 등 대상별 특성에 맞춘 국내 관광유형 소개 및 일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유치마케팅을 펼침으로써 도내 14개 시군에 관광객이 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이외에 카드 한 장으로 전북의 주요 관광지와 교통, 1,000여 개의 맛집, 체험공원 등을 저렴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북투어패스' 카드가 지난 2월 발매됨에 따라 우선적으로 국내 관광객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침으로써 전북방문객 수치를 높여갈 방침이다.

국외 관광객에게는 한복, 한식, 한옥

등 가장 한국적인 전북의 특성을 홍보함으로써 전북 방문 욕구를 제고할 계획이다.

전북도는 해외관광객 유치를 위해 청년층을 주요 대상으로한 국제행사 유치 및 개최로 '국제청년관광도시, 전북도'로 발돋움하는 한 해가 되도록 홍보활동을 펼친다.

또한 지난해 성황리에 치러진 '2016 한중무술문화 축제'가 올해부터는 '국제무술문화교류축제'로 명칭을 변경해 동남아, 미국, 유럽 등 태권도에 관심이 많은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모객 대상을 중국에서 동남아로 확대함으로써 사드 여파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의 급감을 극복하기 위한 전략이다.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동남아 관광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태국, 일본,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에서 현지마케팅을 전개해왔다.

올 상반기 중 중국 현지에서 계획했던 관광설명회 및 박람회 참가를 태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대만, 홍콩 등지로 변경 추진할 방침이며 전북방문의 해 공식행사와 함께 홍보와 더불어 상품판매도 병행할 예정이다.

일본을 대상으로 한 홍보마케팅도 꾸준히 추진한다.

5월에 일본 규슈지역에서 열리는 '월드마크&투어리즘 2017'에 전북, 전남, 광주광역시 3개 시도가 공동으로 참가해 주요행사를 대상으로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고 전라도 관광자원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전주군 산림조합은 사업비 20억원(추정)을 들여 전주군의회 앞, 완주교 육지원청 이전 부지 옆에 신청사를 건설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706㎡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전주군 산림조합은 올 상반기 내에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전시 30명의 직원 유입 및 산림관련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는 전주 이전을 확정하고, 빠르면 올해부터 부지매입에 나서 2019년경에



“폭발물은 저희에게” 9일 완주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관세청 마약탐지견(네오)의 체세포 복제로 태어난 래브라도 리트리버 김이지 두마리와 훈련을 맡을 경찰견종합훈련센터 담당 경찰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 김이지들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경찰청 경찰견훈련센터로 인계돼 폭발물탐지견으로 거듭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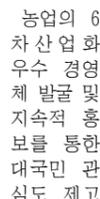
을 공동 홍보해 관광객 유치에 시너지를 창출할 계획이다.

김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올해는 계층별, 시즌별로 세분화해 틈새시장을 겨냥한 국내관광 활성화를 이루

고, 동남아, 일본 등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홍보마케팅을 통해 중국 일본 등 해외 관광객을 다변화하고 외연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전통 모시떡 외길 인생 정읍 솔티마을 살렸다’

농업회사법인 솔티김용철 대표 농식품부 ‘이달의 6차산업인’ 선정



농업의 6차 산업 화 우수 경영체 발굴 및 지속적 홍보를 통한 대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해 농림식품부가 매월 선정하는 ‘이달의 6차산업인(人)’에 정읍 소재의 농업회사법인(주) 솔티 김용철 대표가 선정됐다.

농업회사법인(주) 솔티는 정읍 지역에서 재배되는 모시를 이용한 모시떡 등 30여종의 전통 떡을 출시해 판매 중이다.

또한 전통 떡에 대한 연구개발로 김치함유떡, 모시송편의 특허와 상표등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떡만들기 체험 및 마을축제 운영으로 마을공동체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김 대표의 전통 떡에 대한 부단한 연구개발 노력 끝에 김치함유떡 및 귀리를 이용한 두텁떡의 제조방법 특허 2건, 상표 등록 2건을 보유하는 성과를 일궈냈으며 명품 떡 대표 브랜드로 전국적 명성을 얻고 있다.

특히 마을 공동체 활성화와 행복 마을을 만들어 가겠다는 포부로 2014년 ‘정읍 솔티 모시 달빛 잔치’라는 마을 축제를 시작했다. 축제를 통해 전통 떡 뿐만 아니라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알리며 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방안을 강구한 결과 어르신들에



게 ‘마을연금’을 지급하며 삶의 질을 높이고 마을의 복지에 힘을 보태고 있다.

특히, 2015년 공동체 글로벌 한 마당(행자부) 농어촌부분 어울림상(대상)을 수상하는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연간 5,000여명이 떡 만들기 체험 및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기도 했다.

솔티마을은 2010년부터 속도시작업을 구성해 마을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으며, 20여개 농가가 참여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은 ‘모시’를 매개체로 마을에 활력을 주고 있다.

또한, 김 대표는 마을 자원을 6차산업으로 육성해 일지리와 수익창출에 큰 역할을 하며 마을의 가치를 높이고 있다. 김용철 대표는 현재 HACCP 생산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고 명품떡을 생산 호소평 ranch을 준비하고 있으며, 생산부터 가공, 유통, 체험, 관광, 치유, 문화가 어우러진 6차산업 모델을 만들어기 위해 마을공동체와 상생공유하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의 핵심정책인 보람찾는 농민, 제값받는 농업, 사람찾는 농촌의삼락농정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며 “농업회사법인(주) 솔티는 지역 특산물인 모시떡에 30년 전통떡 외길의 노력을 더해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마을에 활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표적인 6차산업의 성공사례”라고 말했다. /인재용 기자

시군단위 공공·유관기관, 완주이전 확정

완주산림조합·국토정보공 완주지사 등 2곳

완주소방서, 완주교육지원청에 이어 시·군 단위 공공 및 유관기관인 완주군 산림조합과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가 완주 이전을 확정지었다.

특히 이 2개 기관은 이전지로 완주군청사 인근을 선택함으로써, 이전에 따른 완주군 위상 제고는 물론, 완주군이 추진하는 복합행정타운 활성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9일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군 산림조합과 국토정보공사 전북본부 완주지사는 완주 이전을 확정하고, 빠르면 올해부터 부지매입에 나서 2019년경에

2706㎡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전주군 산림조합은 올 상반기 내에 토지매입을 추진할 계획인데, 이전시 30명의 직원 유입 및 산림관련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국토정보공사 완주지사는 전주 이전을 확정하고, 빠르면 올해부터 부지매입에 나서 2019년경에

2706㎡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전주군 산림조합은 올 상반기 내에 토지매입에 나서 2019년경에

2706㎡ 부지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질 전주군 산림조합은 올 상반기 내에 토지매입에 나서 2019년경에

물론 지역주민의 행정편의 향상,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효과가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완주군청사 인근으로의 이전으로 완주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복합행정타운의 활성화 및 내실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완주군은 오는 2019년 완공을 목표로 군청사 주변에 44만7000㎡ 규모의 복합행정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이곳은 1674세대의 주거단지과 초등학교, 공원, 주차장 등이 들어서는데, 계획인구는 4354명에 이른다. /완주=이종복 기자

군산대 산학융합공대 현판식

군산대학교(총장 내의균)가 9일 새만금캠퍼스 신재생에너지 융합특성화관 3층 로비에서 산학융합공과대학 현판식을 개최했다.

산학융합공과대학은 군산대학교가 프라임사업(산학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사업)의 추진을 위해 새만금 캠퍼스를 기반으로 신

설한 첨단교육 공간으로 융합기술창업학과, 소프트웨어융합공학과, 기계융합시스템공학부(기계에너지공학전공, 기계공학전공, 미래형자동차공학전공), 건축·해양건설융합공학부, 공간디자인융합기술학과 등 2개 학부(3개 전공), 3개 학과가 소속돼 있다.

/*토·일요일신문 읽는다.